

9

역사상 최고의 그림



◆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써 봅시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감상해 봅시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

1985년, 화가와 비평가를 대상으로 설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렘브란트의 「야경」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꼽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림이 1위에 오르리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법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에 오른 그림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의외의 결과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벨라스케스는 대중적으로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은 「시녀들」을 보려는 인파로 일대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대단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한눈에 보기에 이 그림은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주인공은 가운데에 있는 어린 소녀인데 바로 스페인 궁정에서 모든 이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 마르가리타 공주입니다. 그 옆으로 두 명의 시녀와 두 명의 난쟁이 그리고 개가 있고 뒤에는 몇 명의 수행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왼편에는 큰 캔버스 뒤로 붓과 팔레트를 든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화가인 벨라스케스입니다. 화가를 보는 순간 우리의 선입견은 깨집니다.

‘아하, 화가가 거대한 거울을 보면서 공주와 여러 궁정인을 그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려는 순간 멀리 배경에 있는 작은 거울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울 속에 두 인물이 보이는데 흐릿하긴 해도 알아볼 만합니다. 이들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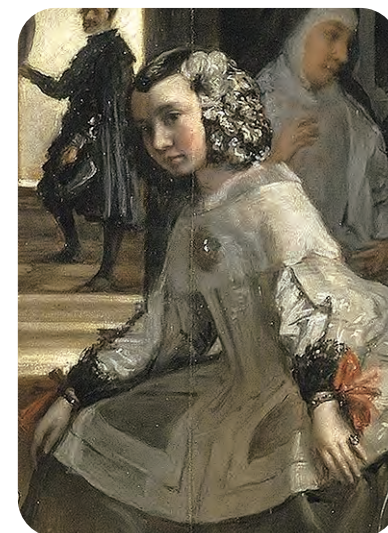
로 왕과 왕비입니다. 거울 속에 국왕 부부가 등장하는 순간 다시금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었습니다. 즉 관람객이 있는 자리에는 왕과 왕비가 있는 것이고, 화가는 공주가 아니라 이들을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림 속 상황이 제대로 풀려나갑니다. 공주는 이제 막 불러 온 것입니다. 초상화 모델이 되어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국왕 부부는 사랑하는 공주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지 공주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왼쪽의 시녀는 마실 것으로 공주의 마음을 달래려고 열심히입니다. 오른쪽 시녀는 막 도착했는지 국왕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국왕이 있는 곳이면 늘 함께 있어야 하는 난쟁이들과 개는 공주와는 상관 없이 여기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넣음으로써 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거울 속에 국왕 부부를 넣음으로써 두 번째 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과 관람자의 관계를 가볍게 비틀어버립니다.

벨라스케스의 뛰어난 재능 중 하나는 빠르게 그려내면서도 그 결과가 보다 생생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앞의 그림 「시녀들」에 등장하는 시녀입니다. 그림 속 작은 부분을 확대하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의상에서 특히 소매 부분의 반짝이는 느낌은 몇 개에 불과한 하얀 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머리 장식은 몇 번의 붓질로 물감을 뭉개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를 두고 이 시녀를 봅시다. 그야말로 사진을 보는 듯 생생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벨라스케스의 마법입니다.



1 「역사상 최고의 그림은 무엇인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선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벨라스케스가 가진 탁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 3 「시녀들」이 역사상 최고의 그림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그림 「시녀들」을 보고 새롭게 보이는 것을 써 봅시다.

3 벨라스케스의 「세바스티안 데 모라의 초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써 봅시다.



4 ‘그림의 힘’을 느끼며 다음 그림들을 감상해 봅시다.

수천 개의 말로도 내 진짜 감정 하나를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나에게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림 앞에 서면 나의 내면이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은 스트레스를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림은 소통과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그림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음 그림들을 감상하며 그림의 힘을 믿어 보세요.

짜증을 풀려면 붉은 방으로 가라



마티스, 「붉은 색의 조화」

식탁에는 쾌활한 긍정을 주는 노란색 과일들이, 창밖을 보면 마음이 쉴 수 있는 초록의 공간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지배적이지만, 보는 사람이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화가 풀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 그림의 제목이 가리키는 ‘붉은 색의 조화’의 힘인 것이죠.

긴장을 풀어주는 노랑의 힘



고갱, 「기도하는 브르타뉴의 여인」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지요. 그런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언제 노랑을 보나요? 여문 곡식과 빛나는 태양의 고유색이 바로 노랑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화가가 희망의 상징물에 노랑색을 넣어왔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쉽게 긴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보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5 클레의 「세네치오」를 보고 내가 느낀 그대로 감상문을 써 봅시다.



▶ '세네치오'는 노랑 국화꽃의 일종입니다.



배움 다지기

●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감상문을 썼나요?

